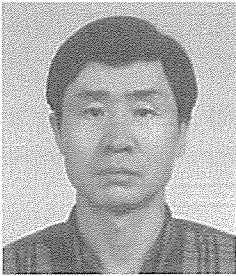


## 섬유에 생명을 접목시킨다. 원적외선 기능성 세라믹 가공섬유 H-UP



오창익 : (주)코튼코리아 대표이사

(주)코튼코리아는 원적외선 기능성 세라믹 가공섬유를 개발·판매하는 업체로 섬유업계에서 20여년의 제품개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작년 말 대성섬유에서 (주)코튼코리아로 새롭게 출범한 회사로서 면직물개발의 한 우물만 고집해온 업체이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도 면직물로서 자연섬유의 이점을 활용하여 입는 섬유에서 건강섬유로 발전시켜 섬유에 생명을 접목시킨다는 새로운 개념의 제품으로서 바이오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다량의 원적외선 방사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광물 포졸란 원석을 이용하여 기능성 건강섬유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제품의 브랜드를 H-UP(Health Up의 약자)으로 상표등록을 하였고 제품생산 공정을 특허출원 하였다.

H-UP은 기능성 섬유를 완전품 형태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뢰업체에서 특정 원단으로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제품가공 요청 시 가공도 함께 병행하고 있으며, 또한 필요한 소요량만큼만 가공이 가능하므로 원단제고로 인한 위험부담도 거의 없다. 또한 가공방법에 있어서도 기능상의 저하요인 없이 다양한 나염형태로도 가공이 가능하므로 패션성도 뛰어나다고 한다.

H-UP 제품은 면직물을 포함한 모든 직물에 가공이 가능하며 외의, 내의, 침구, 모자 등 섬유산업 대부분의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제품의 착용시 신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자연스럽게 방출되는 원적외선효과를 포함한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온열, 보온, 탈취, 항균, 혈류증대)으로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한다. 또한 뛰어난 항균작용으로 세균에 대한 살균효과를 가지며 불쾌한 냄새를 없애주는 효과도 뛰어나다고 자부한다.



본 제품의 특징은 저렴한 가격으로 원적외선 방사 효율을 높인 것과 오랫동안 사용하여 변함없이 원적외선 방사효과를 지속시키는데 있다.

현재 시제품으로 본사에서 직접 침구류를 제작하여 많은 사용자들이 이미 이제품의 뛰어난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곧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어 일반에도 제품이 판매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의류업체, 병원납품업체와도 상당히 상담이 진행되어 곧 가시적인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H-UP 제품은 한국원적외선협회에서 원적외선 방사율 90% 이상, 항균성 99.9%의 시험결과가 확인되었으며 품질보증(FI) 지정업체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도 H-UP 원단 100회 이상의 세탁시에도 물성상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우수한 시험결과를 받았다. 저렴한 가격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여도 원적외선 효과를 지속시키고 멋으로 승부하는 밀라노의 패션보다도 앞선

생명있는 순토종 건강섬유를 순수한 우리기술로 개발해 낸 것이다.

기능성 세라믹가공섬유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여러 시험결과를 통해 입증되었으나 더욱 향상된 고기능성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중이며 당사 제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분석 중에 있다.

H-UP제품으로 국민건강이 좋아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는 것이 회사의 바램이며 이 제품을 통한 침체된 시장경기 회복과 확대에 큰 포부를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국내 섬유시장에 굳건히 서고 세계 최고의 기능성 섬유를 개발하는 것을 다짐해 본다.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 A동 728호

전화 : (02)2264-1877~9

팩스 : (02)2278-3920